

# 사설

## 불자교사들의 역할

전국규모의 불자교사모임이 결성된다. 지난 7월 직지사에서 사흘간 열렸던 불자교사연수회가 계기가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전국 교사 70여명이 서울 경기 등 주요 시도에 간사를 선임하여 지방조직을 다진 다음, 이를 토대로 전국적 규모의 단체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 지역은 29일 발기인대회를 겸한 준비모임을 열고 있다. 취지는 물론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하고 불자교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은 처음 이 모임의 결성을 조계종 포교원에 의뢰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종단이 주체가 되면 공신력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고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위로부터의 주도보다 아래로부터의 교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포교원은 모임이 결성되면 이를 불교청소년연합체 '파라미타'와 연계하는 등 측면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또 다른 불자단체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전국불자교사회는 "같은 취지를 가진 모임이 더 생겨야하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모든 교육은 사실 유치원 이전에 이루어진다.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을 결정하는 기관 아닌 기관이다. 일차적 애정으로 자아의 중심을 형성한 아이는 공격공간의 질서를 익히는 사회화의 시련을 겪는다. 이 이차적 훈련에 실패하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없다. 그 첫 공간이 학교이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감성, 그리고 세계관과 종교관까지 더불어 전달되고 훈련되는 곳이다. 교사 자신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 영향력에 깊숙이 감응되고 흡수된다. 교

사불자들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화해와 안정을 가르치고, 자신을 넘어선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심어준다. 그런 점에서 백명의 포교사보다 한 명의 교사가 더 위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은 그래서 일찍부터 교사들의 신심을 돈독히하고 함께 모여 수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종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불자들의 획기적인 연대와 결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불자들의 자발적 제의를 계기로 조계종은 종단차원의 전국불자교사모임을 올해 안에 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모임이 앞으로 청소년포교의 경험을 나누고 실상을 짚어보며,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가능한 불교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한 술밤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선 각 지역단위의 소규모 교사모임을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이웃들끼리 함께 만나 경건도 읽고 불교의례도 실습하며, 도량에서 심신을 닦는 등, 도반으로서의 동류의식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 신심은 깊어지고 포교에 열의도 함께 자리날 것이다.

이 일에는 종단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지역본사와 말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각 지역불자교사모임을 각 본말사와 연대시키고 결연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설이나 교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불자교사들의 경전이해나 불교이해를 높이는 기초교육을 종단과 강원, 선원이 협력하여 담당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불교계는 교수와 포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불자들은 그런 점에서 다시 없이 소중한 인력이다.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이들에게 전 불자들의 아낌없는 축복과 지원을 당부한다.

# 열린마당

## 산문폐쇄

### '교권수호 위한 결단' 당위성 홍보절실

#### 해광(법주사 주지)



국립공원내 관광사찰의 문화재관리료 징수와 관련 산문폐쇄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0년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화엄사가 잠시 산문을 폐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반국민들과 공민 탐방객들의 여론이 사찰측에 상당히 불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 상황은 8월 29일 6시간동안 실시된 법주사의 산문폐쇄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언론들이 법주사의 상황은 무시된 채 탐방객의 입장에서만 산문폐쇄를 다루었던 것이다. 사찰이 돈을 위해 공단과 부

딛히고 있고 급기야 문까지 닫았다는 편향적인 여론을 감당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물론 공민입장료가 폐지되거나 합동징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사찰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파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 산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탐방객으로서의 당당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찰의 재산과 권익이 무시당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산문폐쇄는 강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정서적 물리적 비중을 감안할때 산문폐쇄는 강도높은 교권수호의 길일 수 있다. 다만 그와관련 사찰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국민정서 고려 사후대책 등 신중해야

#### 성문(조계종 종회의원)



산문폐쇄는 쉽게 거론되어서는 안된다. 불교계 내부적으로 권익보호나 재산권행사등 불가분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찰이 갖는 공공성과 개방을 원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산문폐쇄는 불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중대사안을 두고 행해질때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대정부 협박용으로 자주 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산문폐쇄라는 특단의 조치에 대한 권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산문이 폐쇄되면 우선 불편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단 산문이 닫히면 신도와 일반 탐방객으로 나뉘어 선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산문의 폐쇄는 승려들의 출입마저 통제하는 철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폐쇄의 원인이 소진되기 전에 다시 해제할 수도 없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산문폐쇄의 단행은 철저한 대응전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종단은 산문을 닫는다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신중한 사후관리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입장료문제와 관련 종단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문폐쇄 이외의 조치는 없는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일본 산문폐쇄 사례

### 1964년부터 4년간 경도시 세금징수 대응문 닫아걸고 사찰정비

종교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부과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경도불교연합회는 시에 "차라리 불교계 사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의무부담을 내 놓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나 시는 "뚜렷한 명분없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 사찰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도 하면 서로 좋지 않느냐"며 사찰들을 집속했다. 사찰측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없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사찰측은 격렬히 반대했다. 이유는 경도시가 사찰입장료의 인상에 대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세금명목으로 인상분(50원)을 시가 가져가는 것은

등 경도시의 경제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시가 결국 4년간의 싸움에서 초라한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시가 추진하던 입장료 인상을 발미로 한 세금징수는 수포로 돌아갔고 경도불교연합회가 매년 일정량의 시발전 기금을 기부하게 됐다.

그렇다면 경도시내 관광사찰은 4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굳게 문을 닫아걸고 일제히 사찰을 정비했다. 각 사찰마다 문화재 개보수와 각종불사를 위한 재정을 꼼꼼히 모아두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동안 시주를 받지 않아도 모든 불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금각사의 경우 4년 내내 개금불사를 했는데 산문폐쇄가 끝난 직후 관광객이 4km씩 줄을 서는 진경경이 연출되어 한달만에 4년간의 산문폐쇄로 인한 '적자'를 회복했다.

임연태 기자

#### PC통신 의견들

### 반불교적 언론공세 자제해야

○... 국립공원 관광료 문제 때문에 산문폐쇄까지 하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불교가 잘못된 것같이 떠돌고... 이 문제에 대해 수 많은 불교단체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죠? (ADA MANTO)

### 남의 대문앞서 돈받는 처사

○... 국립공원 지역의 사찰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매우 많은데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부가 불교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형식이 되어 왔다. 이제는 입장료만 따로 징수한다니 말도 안된다. 남의집 대문 앞에 또 문을 만들고 돈을 받는다는 발상은 이제 용인될 수 없다. 절에만 가는 불자들이 입산유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불교를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탄압하려는 시점에서 산문폐쇄같은 강경 조치가 나온 것이니 정부가 사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PBOBJANG)

#### YMCA '분리징수' 주제토론

### "문화재관리 국가차원 지원해야"

산문폐쇄라는 강경조치가 10월 15일이라는 한 시적 간격 속에 유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YMCA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리료 분리징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일 가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입장료와 문화재관리료는 분리징수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보호위원의 신용복 팀장은 "현재의 합동징수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에 위배되고, 정부와 종단간의 합동징수 방식은 공공성과 수요자간의 합의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민입장료중 10~30%의 문화재 보존비 지급도 2중징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존비가 커진 문화재의 보호재원은 수익자 부담만으로 부족하므로 국가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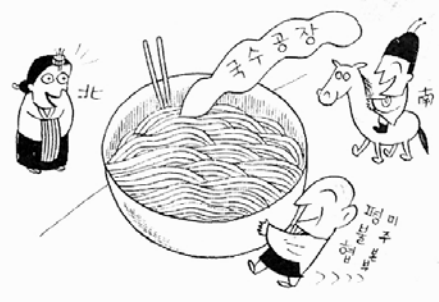
한국관광연구원 김창자연구원은 문화재관리료와 입장료는 '세금과 이용료'의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리징수가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분리징수에 따른 문화재 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임성변호사는 "산문폐쇄는 법률적으로 불법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사찰이 가져온 여러 권리가 국립공원 제정 이후 제약되기 시작했고 공민관리 정책상 사찰이 문화재 보존에 충실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인만큼 분리징수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YMCA는 토론의 결론을 △분리징수 정착과 문화재 보호 세원의 확대 △관리료 책정과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요약하고 문체부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이 토론회가 "조계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점 등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만평

## 현대만평



남남북녀 좋은일 많이 생겨라

737-8881

# 화 고

大韓佛敎曹溪宗 聖林堂 月山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1년 九월 六日 (陰 8月 5日) 20시 30분 토함산 불국사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불기 2541년 9월 10일(음 8월 9일) 오전 11시 ■ 永訣式場 : 토함산 불국사 대도량 ■ 茶毘場 : 토함산 불국사 다비장

## 聖林堂 月山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증명 : 월하, 서용 장의 위원장 : 해암 부위원장 : 원담

위원 : 관응 고승 석주 서암 비룡 응담 도천 지종 운경 일타 청하 성수 도견 송담 지유 진계 승산 범룡 정영 녹원

- 호 상 : 벽 암  
지도위원장 : 월 주  
부위원장 : 설정 암도  
지도위원 : 정락 도후 현해 철웅 법장 무공 법타 보광 철형 성오 율파 법조 지선 종열 현고 천운 지형  
해산 밀운 지관 초우 능가 고산 법안 보성 도성 덕명 범홍 화엄 정관 월운 종인 화능 벽파  
지하 태운 해창 능엄 태허 명선 지성 태운 광덕 무진장 도원 해성 범정 선용 능관 원웅 연관  
지안 대각 현성 현근 종립 수안 광복 정대 세영 무산 청화 원형 부동 무상 덕상 장곡 지운  
인행 범동 정우 신봉 성덕 원소 범일 무작 원명 영단 영환 석호 정우 영배 지운 명관 진만  
지원 영조 보선 해관 종하 진아 대원 정휴 종명 일명 화법 성우 명진 현봉 범성 진관 지만  
송산 여연 효림 장운 해주 흥룡 현운 원우 항적 원혜 도문 능해 진철 동춘 적명 지운 무비  
해국 무어 인각 지환 진허 무문 인환 성운 정관 지은 현로 현관 재관 삼자 지운 지운 대우  
천계 범성 삼보 범철 해충 태연 해춘 상문 광우 명성 묘영 태경 자민 명문 현주 제원 일초  
원학 덕민 선용 정녕(무순)  
서도자 권익현 서석재 박완일 김태호 황수영 최재구 엄상호 송석구 명호근 송재건 안동일(무순)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일직위원, 조·재심호계위원일직, 소청심사위원 일직, 법규위원 일직,  
선거 관리위원일직, 직능대표 선출위원 일직, 교육 위원회 일직, 전국 포교사 일직, 군종봉사단 일직,  
전국 경승 일직, 중앙 신도회 일직인 일직, 전국 사찰 신행단체장 일직, 전국 향승 일직, 교재편찬  
위원회, 각 종립학교 임직위원 일직, 역경위원회 일직, 제11교구 말사 주지 일직, 제11교구 신도회 일직

- 집행위원장 : 설조  
도 감 : 월성 성천 병 법 : 명진 현일  
의 전 : 지명 도법 지옥 수경 성본 성비 진원  
지 객 : 각현 범일 향공 선원대중 강원대중 일동  
재 무 : 해원 현장 흥 보 : 정휴 종광 섭 외 : 해광 도영 무상  
경 호 : 진광 태일 중후 성대 현동 치 산 : 합주 도공 정관  
시 자 : 중봉 성조 원 주 : 정견  
師 弟 : 범행 탄성 이두 혜정 월성 월주 월서 원탄 정일 설조 월룡 천룡 합주 월은 삼덕 월나 월선 월국  
上 佐 : 성타 활안 법달 장주 관우 중상 종인 정휴 철안 종우 서인 종철 종광 종문 정명  
기연 중성 중수 성운 종연 일여 자성 중법 종근 현성 종현 진일 운성 진현 중후  
중천 초상 중덕 중봉 태원 평심(무순)  
法上 佐 : 시연 상록 법현 마근 지현  
孫上 佐 : 해운 정문 삼현 성형 정목 성조 탄공 각천 해원 고경 향오 지정 지혜 외 72명  
在家弟子 : 崔宗大 朴報顯 朴一乘 李東豪 朴熙善 林圭成 邊永宇 裴聖旭 邊永由 李東喆 金元頤  
權寧那 沈中玄 李龍儀 李淳元

## 大韓佛敎曹溪宗 聖林堂 月山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